

‘오프로드 제왕’ 벤츠 G-클래스 ‘AMG G 63’ 한정판 출시

AMG 55주년 기념 ‘G 63 에디션 55’ 85대 국내 판매 “특별한 디자인 요소·퍼포먼스 패키지 희소성 극대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오프로더의 전설’이라 불리는 G-클래스 고성능 모델 ‘메르세데스-AMG G 63’의 한정판 모델을 출시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메르세데스-AMG G 63’의 한정판 모델인 ‘메르세데스-AMG G 63 에디션 55’를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에디션 55 모델은 국내에서 총 85대 한정 판매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AMG는 1967년 한스 베르너 아우 프레흐트(Hans-Werner Aufrecht), 에르하르트 메르허(Erhard Melcher)가 설립한 브랜드다.

지난 55년 동안 자동차의 고성능, 독보적인 특별함, 다이내믹한 운전의 즐거움을 상징해왔다. 메르세데스-벤츠 G-클래스는 메르세데스-AMG 모델 중에서 ‘오프로드의 제왕’으로 꼽힌다. 지난 1999년 고성능 AMG로 첫 출시된 이후 20년 이상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게 벤츠코리아의 설명이다.

메르세데스-AMG G 63 에디션 55는 메르세데스-AMG 55주년을 기념하는 에디션 모델이다. 고유한 박스형 디자인, 강력한 드라이빙 퍼포먼스, 최고 수준의 안전성 등을 자랑하는 G-클래스에 5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디자인적 요소가 더해져

AMG만의 개성과 독보성을 갖춘 모델로 재탄생했다는 평가다.

요하네스 슐 벤츠코리아 제품, 마케팅 및 디지털 비즈니스 부문 총괄 부사장은 “메르세데스-AMG는 뛰어난 주행 성능, 다양한 라인업 등을 통해 지난 55년동안 AMG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며 “이번 AMG G 63 에디션 55 모델에는 AMG 55주년을 기념하며 AMG만의 감성이 돋보이는 특별한 디자인 요소와 퍼포먼스 패키지를 더해 한정판 모델로서의 희소성을 극대화했다”고 덧붙였다.

AMG G 63 에디션 55는 차량 곳곳에 ‘에디션 55’ (Edition 55) 레터링 등 AMG만의 개성을 살린 특별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해 55주년 기념 모델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출시된 에디션 55는 깔끔하면서 세련된 느낌의 G 마누팩투어 오팔라이트 화이트 브라이트 외관 색상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차량 양 측면에 AMG 엠블럼이 새겨진 에디션 55 장식으로 마감했고, 고풍택 립 테두리가 적용된 22인치 AMG 크로스 스포크 단조 휠은 무광 탄탈륨 그레이 색상으로 마감돼 외관과 대비를 줬다.



AMG G 63 에디션 55 내부 모습.

에디션 55의 외관은 ‘AMG 나이트 패키지’와 ‘AMG 나이트 패키지II’가 적용돼 강인함과 역동성을 강조한 게 특징이다.

여기에 차량 전·후면에 위치한 메르세데스-벤츠 삼각별 엠블럼은 물론, 라디에이터 그릴 및 후면에 적용된 AMG 엠블럼, 프론트 윈드에 새겨진 ‘V8 바이터보’ (V8 BITURBO) 레터링, 후면의 메르세데스-AMG G 63 모델 배지가 모두 고풍택 검은 색상으로 제작됐다. 덕분에 메르세데스-AMG만의 역동적이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실내에는 클래식 레드 및 블랙 컬러의 나파 가죽 시트가 조화롭게 적용, 감각적 인터리어를 완성했고, AMG 매트 카본 파이버 트림이 적용돼 남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다이나마이크 마이크로 파이버 소재 기반의 AMG 퍼포먼스 스티어링 휠에도 ‘AMG’와 ‘55’가 각인된 한정판 모델의 특별함을 더했고, 고급 벨루어 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국내 85대 한정판으로 선보이는 ‘메르세데스-AMG G 63 에디션 55’를 출시했다. AMG G 63 에디션 55는 메르세데스-AMG 55주년을 기념하는 에디션 모델로, 특별한 디자인 요소가 더해져 AMG만의 개성과 독보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벤츠코리아 제공>

재의 블랙 컬러 AMG 에디션 55 스페셜 플로어 매트와 레드 컬러의 스티어링 및 ‘에디션 55’ 레터링으로 장식돼 품격을 높였다고 벤츠는 설명했다.

특히, 국내에 선보이는 이번 에디션 55 모델에는 퍼포먼스 패키지가 적용돼 강력한 성능을 갖췄다.

퍼포먼스 패키지는 4.0리터 V8 바이터보 엔진에 적용된 AMG 카본 파이버 엔진 커버와 함께 최고 속도를 시속 240km까지 향상시켜 AMG G 63이 강력한 주행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에디션 55 출시를 기념해 11월 한 달 간 AMG 전용 브랜드 센터 ‘AMG서울’에서 메르세데스-AMG G 63 에디션 55 모델을 전시한다.

메르세데스-AMG G 63 에디션 55의 부가세 포함 가격은 2억9360만원이며, 전국 64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전시장을 통해 제품 상담 및 구매가 가능하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그룹은 유현준건축사사무소와 공동으로 연구한 ‘HMG 그린필드 스마트시티 참조모델’,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과 협업한 신학과제 등 미래 도시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지난달 31일 공개하고 온라인 전시를 진행한다. 사진은 HMG 그린필드 스마트시티 참조모델. <현대차 제공>



현대차그룹은 유현준건축사사무소와 공동으로 연구한 ‘HMG 그린필드 스마트시티 참조모델’,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과 협업한 신학과제 등 미래 도시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지난달 31일 공개하고 온라인 전시를 진행한다. 사진은 HMG 그린필드 스마트시티 참조모델. <현대차 제공>

현대차그룹 협력사 온라인 채용박람회...8개 그룹 440곳 참여

오늘~11일

현대자동차그룹은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자동차산업 고용에 활기를 불어넣고, 협력사들과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2022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2012년부터 이어온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 채용박람회는 대기업이 지원하는 국내 최초 협력사 채용박람회다. 채용 상담 등을 통해 실제 채용까지 연결되도록 현대자동차그룹이 행사 기획부터 운영까지 재정적인 지원 등을 담당하는 국내 대표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다.

올해 11회째를 맞은 협력사 채용박람회는 코로

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와 동일한 온라인 방식으로 11월1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비롯해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 현대로템, 현대오트모, 현대엔지니어링 등 8개 그룹사 관련 총 440여개의 협력사가 참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등이 후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2022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 온라인 채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http://www.hmgpartnerjob.co.kr)를 방문해 회원가입을 하고 홈페이지에서 협력사별 채용 공고를 확인한 뒤, 관심 있는 기업에 지원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서류 합격자에게는 별도의 합격 안내가 통보되고 이후 온라인으로 면접이 진행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산업 및 관련 분야 구직자에게 희망과 도전의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채용박람회가 되도록 기획했다”며 “코로나로 위축된 자동차산업 채용시장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사 종료 후에는 협력사 채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자동차 관련 산업 분야에 특화된 채용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입사 지원을 연중 상시로 진행하는 수시채용관으로 재단장에 운영할 계획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쌍용차, 회생절차 종결 신청...1년6개월만에

쌍용차가 이르면 다음달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했다고 31일 공식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 1년6개월만이다.

쌍용차는 회생절차 과정에서 에디스모터를 M&A(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에디스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재매각 절차에 돌입한 쌍용차는 KG컨소시엄을 인수 예정자로 선정했고, 지난 8월 법원으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아 최종 인수자로 KG컨소시엄을 확정했다. KG컨소시엄은 3655억원의 인수대금을 냈고, 유상증자 대금 5710억

원도 납입 완료했다. KG모빌리티의 지분율은 66.12%로 쌍용차의 대주주가 됐다.

쌍용차는 인수대금을 바탕으로 채권 변제도 대부분 마쳤다. 변제할 총 채권액 3517억원 중 3516억원의 채권을 변제했고, 계좌 정보가 접수되지 않은 일부 채권자를 위해 산업은행 계좌에 5900만원을 별도 예치했다.

쌍용차는 인수 절차 마무리와 함께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도 최근 단행했다.

7월 출시된 투싼은 매달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양산을 목표로 전기차 ‘U100’도 개발하는 등 전동화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기아, 차별화된 정비 서비스로 고객 중심 경영 실현

긴급출동 견인 시 이동 지원·평일 야간 사전 입고 서비스 운영 등

기아가 대고객 정비 서비스를 강화해 고객 중심 가치 실현에 선다.

기아는 정비 시 고객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긴급출동 견인 시 이동 지원’, ‘평일 야간 사전 입고 서비스 운영’, ‘K달리버리 서비스의 고객 접점 확대’ 등 고객 관점의 정비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긴급출동 견인 시 이동 지원 서비스는 긴급 출동 상황에서 차량 견인 시 고객이 이동할 수단이 없는 경우 당일 귀가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제공한다.

견인 대상 차량이 보충 경과 이전이어야 하며, 교통비는 1회, 최대 5만원으로 산정된다. 고객이 긴급 출동 후 사용한 교통비 영수증을 센터나 협력사에 제출해 증명하면 계좌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기아는 평일 주간엔 직영 서비스 센터에서 정비를 받기 어려운 고객을 위해 평일 야간 사전 입고 서비스도 운영한다.

고객이 정비 예약일 전날 야간에 차량을 센터에 입고하고 차량 키를 무인 보관함에 두면 다음날 서비스 센터가 정비를 진행하게 된다.

기아는 야간 입고 안내부터 예약 당일 정비 진행 과정까지 모바일 안내를 통해 차량 입고 시 혼선을 방지하고 비대면 정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정비 예약 2일 전 발송되는 카카오톡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아울러 기아는 센터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K달리버리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K달리버리 서비스는 고객 희망장소에서 수리할 차량을 픽업하거나 수리완료 차량을 고객 희망 장소로 배송하는 서비스다.

기아는 제휴 택업체를 통해 도서 산간 및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아 통합 모바일 고객 앱 ‘마이기아’(MyKia)와 기아 멤버십 홈페이지, 기아 고객센터 등으로 접수 창구를 다양화해 고객 접근성을 높였다.

고객은 택송 거리에 따라 산정되는 비용을 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기사 배정 및 차량 이동 현황을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관점의 정비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멈추지 않는 고객의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금호타이어, 겨울용 타이어 구매 이벤트

금호타이어는 11월부터 겨울용 타이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금호타이어 겨울용 타이어 4개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1일부터 26일까지 사은품을 증정하며, 타이어포드 등 전국 금호타이어 대리점(일부매장 제외)에서 실시한다.

행사 제품은 금호타이어의 승용차용 프리미엄 겨울타이어 ‘윈터크래프트 WP72’,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전용 프리미엄 겨울타이어 ‘윈터크래프트 WS71’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히터팬 전기온풍기와 기능성 캠핑 이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호타이어 공식 홈페이지(www.kumhotire.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윈터크래프트 WP72’는 프리미엄 겨울용 타이어로 고급 세단을 위한 맞춤형 설계를 통해 겨울용 타이어임에도 저소음, 컴포트 성능을 향상



금호타이어 ‘윈터크래프트 WP72’

시켜 승차감과 주행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SUV 전용 제품인 ‘윈터크래프트 WS71’은 SUV에 특화된 신규 비드(타이어를 휠에 장착, 고정시키는 역할) 기술을 적용해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비대칭 패턴 설계를 통해 눈길, 빙판길 노면에서의 제동력을 대폭 강화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